

03 자 퇴 와 검 정 고 시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정시 중심이 되는 구조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숫자로 보면	3
03 내신은 어떻게 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정시·논술·교과·학종 — **문마다 얼마나 열려 있나**
- ◆ **기회의 수가 줄어듭니다** — 아홉 장이 실질적으로 몇 장이 되는가
- ◆ **검정고시 성적은 내신이 되나** — 대학마다 다르고, 물어보실 세 가지
- ◆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 — **계산을 세워 보는 법**

01 · 먼저 사실부터

문이 정시 쪽으로 좁아집니다

검정고시 합격은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입니다.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와 「모든 문이 열린다」는 다릅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수시가 좁아지고, 남은 무게가 정시로 쏠립니다.

문	어떻게 되나
정시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 수능으로 겨룹니다
논술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 가능 60줄 · 제외 37줄
교과	내신 산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218줄
학종	가장 좁습니다 — 제외 286줄

수능 응시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재학생과 같은 시험을 같은 날 봅니다.

그러니 「정시로 간다」는 계산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그 계산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를 이 편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 두실 것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와 「검정고시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는 다른 물음입니다.

앞의 물음에는 「갈 수 있습니다」가 답입니다. 뒤의 물음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대체로 문이 좁아집니다」가 답이고, 이 편은 뒤의 물음을 다룹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의 지원자격 문장 집계 및 수능 응시 자격 안내(2026년 8월 기준). **날말로 센 것이다.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고, 언급이 없는 28개 대학 5,493줄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집계로는 알 수 없다.**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대학 요강 원문을 읽어야 한다.

02 · 숫자로 보면

기회의 수가 줄어듭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원서 장수입니다.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수시	여섯 장	쓸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정시	세 장	세 장
합계	아홉 장	실질적으로 더 적습니다

여섯 장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과 일부 교과·학종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지니 여섯 장을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시 쪽 숫자도 함께 보십시오

정시는 세 군에 한 장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6학년도 정시 입결 5,261줄을 센 바로는 **총원을 중앙값이 42%**이고 **총원이 한 명도 없는 자리가 33%**입니다.

정시는 예비번호가 도는 편이지만 세 장뿐이라 한 장의 무게가 수시보다 큼니다.

그러니 「정시에 올인」은 기회를 좁히면서 한 장의 무게를 키우는 선택입니다. 수능을 아주 잘 볼 자신이 있을 때 맞는 계산이고, 그 자신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출처: 2026학년도 정시 전형결과 5,261줄/40개 대학 집계. **총원 0명인 줄을 빼면 중앙값이 42%→69%로 부풀다.** 0은 falsy라 실수하기 쉽다.

03 · 내신은 어떻게 되나

대학마다 다릅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이 내신 등급으로 바뀌는가.

대학마다 다르고, 규칙을 두지 않은 대학이 많습니다. 저희가 요강을 켜 바로는 검정고시 성적의 산출 방법을 자격 문장에 적어 둔 줄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로 안내하거나 아예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학이 하는 방식	어떻게
안 받습니다	자격에서 제외 — 가장 흔합니다
따로 셈합니다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이 정한 방법으로 환산
서류로 봅니다	학생부 대신 다른 서류를 요구

둘째·셋째 줄에 해당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건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없는데 짐작으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려는 대학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찾아보시고, 나오지 않으면 입학처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실 것은 셋입니다 —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성적은 어떻게 셈합니까」, 「서류는 무엇을 냅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이고, 이걸 안 하고 정하는 것이 이 결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물어보실 때의 요령

「검정고시 출신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보다 「○○전형에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는지,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 낫습니다.

전형을 짚어서 물으셔야 합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답을 들으신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요강은 해마다 바뀌고, 지금 들은 답이 원서 낼 때도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격 문장 집계.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식은 대학이 따로 안내합니다 — 입학처에 확인하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계산을 세워 보는 법

「정시로 간다」는 계산을 세워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를 건주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재나
1	지금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곳	남아 있는 수시 자리
2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곳	모의고사 성적으로 짐작
3	학교에 남아 둘 다 하는 것	수시 여섯 + 정시 세 장

3번을 빼놓고 1과 2만 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퇴가 정시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자퇴로 얻는 것은 「시간」이고, 잃는 것은 「수시 자리」입니다. 그 시간이 수시 자리보다 값이 큰가 — 계산은 그 한 줄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가려는 대학이 검정고시를 받는지 확인했는가
- ☐ 받는다면 성적을 어떻게 셈하는지 확인했는가
- ☐ 지역인재 를 쓸 계획이었는가 (대개 막힙니다)
- ☐ 지금 모의고사 성적 이 목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 ☐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자퇴로 실제로 늘어나는 시간 이 얼마인지 세어 봤는가
- ☐ 혼자 하루를 짊 수 있는 아이인가
- ☐ 안 되면 돌아올 길 을 알아봤는가 (N5)

일곱째가 실제로 가장 크게 걸립니다. 학교가 짜 주던 하루를 스스로 짜야 합니다. 그게 되는 아이와 안 되는 아이의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가 상담에서 본 바로는 이 선택이 잘 된 경우와 안 된 경우를 가른 것은 대개 「수능 실력」이 아니라 「혼자 하루를 짊 수 있는가」였습니다. 실력은 비슷해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건 성적표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검정고시와 대입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검정고시 성적이 좋으면 대입에 도움이 되나요?

대체로 아닙니다. 검정고시는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이지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하면 고졸 학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점수가 높다고 지원 자격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처럼 환산해서 쓰는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에는 점수가 쓰입니다. 다만 그건 대학이 요강에 적어 둔 경우이고, 안 적혀 있으면 안 쓰입니다.

그러니 「검정고시를 잘 봐서 유리해지자」는 계산은 대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목표이고, 승부는 수능입니다.

Q.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대입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정시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둘 다 수능 점수로 겨루고, 학생부가 쓰이지 않는 전형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다릅니다. 재수생은 고등학교 졸업자라 「졸업(예정)자」 조건을 채웁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그 조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에게는 3년치 학생부가 있습니다. 학종을 쓸 수 있는 자리가 검정고시 출신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수할 거면 자퇴가 낫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졸업하고 재수하는 쪽이 문이 더 넓습니다.

남은 학기가 얼마인지를 보십시오. 한두 학기 남았다면 마치는 쪽이 대개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검정고시는 지원 자격을 주지만 수시 자리를 좁힙니다. 자퇴로 얻는 것은 시간이고 잃는 것은 수시 자리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 집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별 취급은 요강에 따르며 해마다 바뀝니다. 상담 경험에서 온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